

보도자료

2021년 09월 29일(수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기술자격본부 검정관리팀 팀장 엄호성 (061) 350-1641
배포: 운영지원단 총무홍보팀 사원 최혜인 (061) 350-1325

전파진흥원,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「모바일 문진표 서비스」 전면 실시

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KCA)은 국가자격시험 수험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 「모바일 문진표 서비스」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.
- 해당 서비스는 KCA에서 자체 구축한 시스템으로, 오는 10월 2일에 실시하는 시험부터 전국 17개 시험장에 전면 실시하여 5,600여명의 수험자들이 모바일 문진표를 작성하게 된다.
- 수험자들은 시험 3일전 발송된 문진표 접속 링크를 통해 모바일 문진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QR코드 화면(이상없음 검은색, 의심증상 빨간색)을 시험장 출입 당일 제시하면 된다.
- 모바일 문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험당일 문진표 작성·확인 후 출입이 가능하며, 의심 증상자는 일반 수험자들과 분리돼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.
- 코로나 감염사례가 Zero인 KCA는 수험자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 및 격리대상 여부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사전 확인하고, 수험자가 진단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감염병 예방관리를 이중화 하였다.

- 정한근 KCA 원장은 “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자들이 안전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 라고 말했다.
- 2021년도 제4회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 필기시험은 10월2일(토)에 예정되어 있으며, 자세한 시험일정·장소는 KCA 자격검정홈페이지(www.cq.or.kr)를 참고하면 된다.